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성황'

'오늘의 열정, 내일의 기회로'

도내 직업계고 학생 1000여명 참여... 우수기업 현장 면접 등 가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허림미션홀에서 '2024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직업계고 학생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늘의 열정, 내일의 기회로'를 슬로건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 주최한 이번 취업박람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직업계고 출신 지역 기술인재들의 지역안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채용관, 컨설팅관, 취업지원사업 홍보관,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채용관에서는 자동차 부품 및 기계제조, 농생명, 바이오, 제약, 보건의료, 식품산업, 이차전지, 기타 서비스 업종 등 도내 우수 중소기업 60개사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홍보관에서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안내했으며, 취업컨설팅관에서는 △구직자 대상 입사서류 1:1 컨설팅 △메이커스페이스 체험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무료사진 촬영 △퍼스널컬러진단관 등 학생들의



16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허림미션홀에서 '2024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취업 지원을 도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매칭된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한 뒤 11

월 이후 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취업박람회를 통해 유능한 지역 인재의 기업 유입을 돕고자 한다"면서 "도내 우수

중소·중견 기업과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매칭해 학생들이 도내 기업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는 지난 15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워터밤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물총놀이로 소중한 추억 만들기

전주사대부고 워터밤 축제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이하 전주사대부고)는 지난 15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워터밤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생활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워터밤 축제는 운동장에서 1~2학년 중 희망한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들은 물총놀이를 하며 서로에 대한 어색함을 날리며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었다.

행사를 총괄했던 소순중 교사는 "워터밤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서 학생은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의 세심한 준비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물총놀이와 함께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완산학원 이사장 선임 '논란'

전교조 전북지부 "서 교육감 보은인사... 즉각 해임해야" 주장 전북교육청에 "학원 정상화 이어나갈 임시이사 다시 파견하라"

완산학원 이사장 선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서거석 교육감의 보은인사, 강일영 완산학원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5년 전 공공회원과 비록수수 등으로 53억 원을 행진 사실이 발각돼 설립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소속 중·고교에서 교직원만 45명이 연루됐는데, 이중 39명이 파면과 해임, 임용계약 해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사립학교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전북교육청은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사대 수습을 위해 완산학원에 파견됐던 임시이사들은 그동안 인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채용 절차

개혁에 공을 들인 바 있다.

이후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인 시절 인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강일영'이 임시 이사장이 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체협약에는 이런 사립학교를 견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다. 사립학교에서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를 통해 승진대상자 추천 및 신규교사 임용 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러한 조항마저 서거석 교육감 자신이 맺은 협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임시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완산학원의 정상화와 민주화를 이어나갈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

모빌리티 실내 소음 예측 연구 '우수'

전북대 김혜진 박사과정생, 음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발표상'

전북대학교 김혜진 박사과정생(항공우주공학과, 지도교수 조해성)이 최근 여수에서 열린 '2024년도 한국음향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제39회 수중음향학 학술발표회'에서 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혜진 박사과정생은 다양한 시계열 길이에 따른 시계열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실내 소음 예측 및 제어 모델 개발이라



제어 모델 개발을 위해 시계열(時系列) AI 모델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

는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김 박사과정생은 모빌리티의 실내 소음 예측 및 능동 소음

해 동작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혜진 박사과정생은 "지도 교수님을 비롯한 이번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항상 열정을 갖고 학문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시계열(時系列)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통계량을 벌여 놓은 열.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도내 대학교육 발전 논의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가 16일 전북지역 대학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대학교 발전 및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6일 전주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회는 전북지역 대학교육을 활성화하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및 회칙 일부 변경 작업을 했다.

또한, 학생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한계 및 대응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협이 이루어졌으며, 원광대학교의 글로벌 대학 본 선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학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각 대학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립군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10개 대학이 회원교이며,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대, 18~19일 호남권역

예비창업자 지원 캠프 개최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손정민)은 18~19일 이틀 간 군산 예인호텔에서 호남권역 내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TIM(Tech item-idea Make) 기업가 정신 캠프를 개최한다.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유망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20명 내외의 호남권 예비창업자를 선발, 캠프 기간 동안 기업가 정신 강의 및 전문가 매칭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후 관련 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번 캠프에서는 교육과 개발 아이템의 기술적 보호와 경쟁제품 분석을 위한 방향 설정, 실제 창업시체를 통한 실증 교육, 분야별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전략 수립, 시장 진입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 방안 마련 등이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호남고, 내년 남녀공학 전환... 학과 개편 인가

전북교육청, 2025학년도 고교 학과개편 추진... 총 15교 인가 학령인구 감소 대비 · 미래교육 수요 반영... 학교 경쟁력 강화

정읍 호남고가 내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학과개편을 추진, 총 15개교에 대한 인가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고교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고등학교 학과개편을 추진했다.

인가 내용은 학과 개편 7곳, 학급(정인) 조정 7곳, 남녀공학(단성) 전환 1곳 등이다.

전주공업고는 자동차과를 미래산업

수요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변경하고, 전주상업정보고와 군산여자상업고는 취업 수요가 많은 사무행정과와 공공행정과를 각각 신설한다.

또 남원제일고와 전북하이테크고, 영선고도 신기술·신산업 분야로 학과를 개편해 학교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이리공업고는 기존 학과를 전면 폐지하고 배터리융합과를 신설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이차전지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도전한다.

호남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학령인구

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적정학급 유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 학급 증설(백화고 1학급, 함열여자고 1학급), 정원 증원(익산고 22명), 정원 감축(마이스터고 4교, 16명)도 이뤄진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이번 학과개편의 목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교육수요를 예측한 고교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 예산편성 도민 의견 청취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 30일까지 의견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산편성 의견 접수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예산편성 의견서 제출 분야는 2025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교육사

업 전반으로, 도내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공모사업이 각 부서의 목적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또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업무 부담을 감소하고자 올해부터 심사기준을 '특정 학교가 아닌 전체 전북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으로 명확히 했다. /장은성 기자

해서는 5개 이내의 사업을 선정, 5만원 상당의 부상도 제공된다.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누리집(참여 제안/주민참여예산제/예산편성 의견)을 비롯해 우편이나 FAX,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설문은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학생 참여를 위해 학생 대상 설문조사가 신설됐다.

설문 조사는 QR코드 또는 <http://ksurv.kr/akM3Nzg30jk>로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